

진안 女 테니스부 창단에 '긍정적'

대한테니스협회·전북체육회 적극 지원 약속

진안군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5일 정강선 회장과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 김우연 전북테니스협회장이 진춘성 진안군수를 만나 '여자 테니스 실업팀' 창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실업팀 창단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강선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평소 체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진춘성 군수는 실업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창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정희균 회장은 진안군이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전국대회 유치와 우수선수 영입 등 테

니스 관련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북이 고학년 조세혁 선수가 최고 권위의 테니스 대회인 암블단에서 14세부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하면서 테니스 종목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 발전을 위해 합쳐진 진춘성 진안군수와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테니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북 체육이 빛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정읍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실업팀 창단 및 육성을 준비하거나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청 육상부, 전국실업육상 메달 싹쓸이



금 1·銀 2·銅 4개 획득
신소망, 800m서 1위 차지

익산시청 육상부가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전국실업육상대회 출전해 메달 7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육상연맹 및 익산시육상연맹이 주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실업 육상 사상 최초로 실시된 시리즈 대회의 최종전이었다. 한국기록보유자 8명과 국가대표 13명 등이 대거 출전한 이번 왕중왕전에서 익산시 소속 육상 선수들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여자 일반부 800m 최강자인 신소망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분07초68을 기록하며 국내 최고 선수의 기량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여자 일반부 1500m에서 오혜원 선수는 4분42초82로 은메달과 800m 종목에서 2분17초76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세단뛰기에서는 유규민 선수가 16m50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멀리뛰기에서는 김영빈 선수가 7m86, 원반던지기에서는 신우진 선수가 50m86, 창던지기에서는 이세빈 선수가 50m96를 기록하며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형 육상감독은 "열심히 훈련에 임한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에서 여자 일반부 800m 경기를 펼치고 있는 신소망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



남원 춘향골체육공원 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 4일 저녁, 2일부터 4일까지 펼쳐진 제59회 전라북도민체전 폐회식이다. 이번 체전에서 전주시가 종합 1위, 남원시가 종합 2위, 익산시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전주시, 종합 1위 차지... 전북도민체전 '피날레'

2위 남원시·3위 익산시
전라예술제 등 병행 개최
즐길거리 등 대내외 알려

도민들의 큰 관심 속에 치러졌고, 14개 시·군 선수단 1만여 명이 37개 종목에 참가, 열띤 경쟁을 펼쳐, 전주시가 종합 1위, 남원시가 종합 2위, 익산시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이번 체전 기간 모든 도민들이 문화로 하나되고, 스포츠로 결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라예술제와 마걸리축제 등을 병행 개최, 남원시의 대표적인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기간 특산물 전시코너에 남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을 전시 및 판매, 선수

단 가족 등 2만5,000여명 이상이 남원을 찾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전라북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회를 15년 만에 남원에서 펼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러웠다"면서 "대회기간 동안 180만 전북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전라북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골체육공원 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 4일 저녁, 2일부터 4일까지 펼쳐진 '제59회 전라북도민체전'이 3일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도민체전은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대회 초창기부터 많은 체육인들과

지역별 도민체전 출전자들, 체전서 '승전보'

무주, 체조·탁구·자전거 종목서 각각 1위

제59회 전라북도민체전에 출전한 무주군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무주군을 빛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선수단 가운데 체조와 탁구 자전거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타 시·군의 쟁쟁한 선수들과 겨뤄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체전에 참여한 이세희 감독이 이끄는 체조와 박종범 감독이 이끄는 자전거, 이주원 감독이 이끄는 탁구 종목에 출전해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그동안 약체로 평가 받았던 야구에서 3등에 입상하는 등 다양한 종목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무주군 선수단은 이번 도민체전에서 448명(입원 54, 감독코치 57, 선수 337)의 선수단이 참여했다.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은 "무주군체육회는 이번 도민체전을 필두로 향후 각종 스포츠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을 육성해서 동부권 스포츠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단체줄넘기·제기차기서 2위... 투호 男 1위



진안군은 지난 일주일간 남원시에서 개최된 제59회 전라북도민체전에서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체육 저력을 과시하며 대회일정을 순항리에 마쳤다. 진안군은 효자종목인 민속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며 두 달간의 감독·코치 지도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단체줄넘기, 제기차기에서 종합 2위, 투호 남자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단체전에서 줄다리기 종합2위(여자, 남자 3위)의 쾌거를 거두며 기적의 드라마를 이어갔다. 더불어 불링 남자부도 3위로 입상했고, 육상 남자부 400m 계주 3위, 마라톤 중등부 종합 1위, 바둑 남자 초등부 3위, 배드민턴 1부 3위 등 여러 종목에서 선전했다. 특히 입장식에서는 눈에 띄는 붉은색의 흥심터를 입고 흥이 나는 연주와 함께 흥심축제를 흥보해 입장상 3위를 차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여기는, 고창입니다

구서포 쌍둥이등대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